

흙을 살리는 것은 인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

“우리는 발밑에 있는 흙보다 머리 천체의 움직임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우려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늘날 기후 변화, 폭염과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는 사실은 흙을 마구 파헤친 결과와 무관치 않다. 4대강 건설로 강에는 녹조가 뒤덮이고, 여름의 예상치 못한 폭우로 도심의 지반이 꺼지기도 한다.

생명의 근간인 ‘흙’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해 발생한 결과는 상상 그 이상이다. 인간은 얇디얇은 ‘지구의 살갗’인 흙을 아무렇지 않게 벗겨냈다. 그로 인해 논밭 전지였던 녹지는 아파트 숲으로 변했고 울창한 산림은 고속도로에 잠식당해 흔적 없이 사라졌다.

연제부턴가 봄이면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도심은 창문을 열 수 없을 만큼 미세먼지로 가득하다. 그 뿐인가. 페타이어 알갱이로 포장된 공원의 산책길에는 한 줌의 흙도 남아 있지 않다. 이렇듯 현대인들은 흙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산다.

땅의 생명력을 되살리며 순순한 고리에 초점을 맞춘 책이 출간됐다. 위싱턴대학 지구우주과학부 교수인 데이비드 몽고메리가 펴낸 ‘발밑의 혁명’은 문명의 근간인 흙과 땅 밑 경제의 뿌리를 조명한다.

‘쟁기질과 비료에 내몰린 땅 속 미생물들의 반란’이라는 부제는 “농업의 상징인 쟁기가 사실은 파괴적인 발명품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에 닿아 있다.

저자는 세계 곳곳에서 흙을 되살리고 있는 이들의 분투기와 성장기를 들려주며 동시에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발밑의 혁명

데이비드 몽고메리 지음, 이수영 옮김

트랙터와 화학비료, 제조제 등으로 흙을 착취해 온 현대 농업의 신화에 맞서는 움직임이다. 우디타쉬 NGO ‘솔로머니’ 창립자는 “몽고메리는 ‘모든 길은 흙으로 통한다’는 진리를 일깨워 준다”며 “21세기 우리 시대가 맞닥뜨린 가장 긴급한 과제들을 바로잡는 데 흙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드러낸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환경과 생태에 관한 희망을 찾는 길은 무엇일까.

저자는 농업생태학, 보존농업, 재생농업, 갈색혁명 등 다양하게 불리는 농법에 주목한다. 한마디로 ‘흙의 건강’을 핵심에 둔 방법은 비료와 농약, 화학연료에 의존하는 기업농과 이를 지원하는 각국 정부의 농업 정책에 맞선다.

농부들은 어떤 방식이 효과가 있었는지 경험담을 들려준다. 이 과정에서 농부들은 땅심을 돌우는 농



기후변화·폭염·폭설 같은 자연재해는 흙 마구 파헤친 결과

토양생물학 원리 토대로 땅속 미생물 활용 황폐화 방지

흙 되살리는 이들의 분투기·성장기와 해법 제시



밭에서 한 농부가 소 쟁기질을 하고 있는 모습.

법이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즉 땅에 재투자하는 농법이다.

저자는 토양의 황폐화와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는 ‘다섯 번째’ 혁명에 주목한다. 역사상 농업에서

나타난 첫 번째 혁명은 경작을 시작하고 쟁기와 가축 노동력을 도입한 것이다. 두 번째는 산업혁명 이전에 돌러지기, 사이짓기, 두엄 등으로 토질을 획기적으로 높인 때다. 세 번째는 기계화와 농업화로 화

석연료와 비료를 많이 사용한 시기다.

그리고 네 번째는 녹색혁명과 생명공학의 성장으로 수확량이 증대되고 기업의 지배가 강화된 시대와 맞물려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토양생물학’의 원리를 토대로 흙을 살리는 시대다. 저자는 자연의 방식으로 흙 위뿐 아니라 흙속에서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보존농업(재생농업) 방식은 다음 세 원리에 바탕을 둔다고 설명한다. 흙을 파헤치는 일을 최소화하며 피복작물을 기르고 작물 잔여물을 남겨 흙을 ‘언제나’ 덮어둔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작물을 돌려짓기한다.

이 같은 방법은 인간과 자연 모두에 이롭다. 물을 덜 쓰고도 탄소배출을 줄이며 오염물질을 거의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가 농사짓는 방법에 따라, 또는 그 결과로 비옥한 흙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엽토’(humus)와 ‘인간’(human)의 라틴어 어원이 동일하다니 그럴 만하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의 농지에서 흙을 건강하게 되살리는 일이 우리가 인류의 미래에 할 수 있는 최상의 투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삼천리·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존 스튜어트 밀 지음, 박문재 옮김 ‘자유론’

“개인의 자유는 자신의 사고와 말,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모든 범위에서 절대적이다. 국가의 법률이나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 ‘자유론’은 출간된 15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랑을 받는 고전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책의 가치가 빛을 발한다. 이번에 30년간 신학과 인문학 도서를 번역해온 박문재 전문 번역가의 번역으로 나온 ‘자유론’은 오늘날의 시대 정신에 부합한다.

밀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시민으로서 개인은 무한한 자유를 갖는다. 단 하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되는데, 다만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는 간섭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과 능력을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국가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개인을 억압할 때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존 스튜어트 밀이 제시했던 시민적 자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개인의 양심과 자유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자유를 향한 우리의 투쟁은 밀이 말한 개인의 자유의 한계선에 다다르기 위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자유론’에 맞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지성·77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황선미 지음 ‘나도 내 감정과 친해지고 싶다’

감정은 현대인이 느끼는 소외의 중심에 놓여 있다. 감정을 느끼고 감정과 친해져야 건강한 삶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사실 감정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 인간관계까지를 좌우한다.

다양한 연령,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상담학’이라는 한 우물을 넓고 깊게 파고 있는 황선미 박사가 ‘나도 감정과 친해지고 싶다’를 펴냈다.

저자는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과 친해지는 법을 이야기 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행복한 관계를 맺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말지 못하거나, 혹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심리적 어려움과 관계에서의 괴로움을 겪는다.

저자는 모든 감정은 가치중립적이라고 설명한다. 부정적 감정은 버려야 할 감정이 아니며 다양한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은 모두 7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왜 감정이 중요한지, 내 감정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2장-6장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상적 감정들(화·공허함·부끄러움·불안·우울)에 대해 조명한다.

사람에게는 여러 감정이 있지만 앞서 거론한 감정은 더 문제시되는 것들이다. 저자는 이러한 감정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사랑이라는 치유법을 제시한다. 용서하는 사랑의 힘, 감싸주는 사랑의 힘, 채워주는 사랑의 힘, 버려주는 사랑의 힘, 기다려주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감정은 수용되고 소통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메이트북스·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영규 지음 ‘조선 관청 기행’

“예컨대 1796년(정조 20년) 이황의 학역을 기리고자 실시한 도산 별과 과거에 7천 명이 넘는 인원이 응시했는데, 급제자는 단 2명에 불과했던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은 공무원이다. 2018년 3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44만 명에 달하고, 같은 해 6월에 실시한 서울시 9급 보건의 공무원 채용 경쟁률은 135대 1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 시대 공무원의 인기가 지금보다 높았다. 도대체 무슨 특전이 주어졌기에 관리의 인기는 이토록 높았을까? 왕조 국가 조선에서 관청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으며, 관리들은 관청에서 무슨 일을 했던 것일까?

‘조선관청기행’은 조선의 행정 조직과 관직 체계를 속속들이 밝혀 조선의 숨겨진 실상을 생생히 그려낸다.

베스트셀러 ‘한 권으로 읽는 역사’ 시리즈를 집필한 저자 박영규는 왕조 국가 조선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조선의 행정 조직과 관직 체계를 일괄했다.

책은 1부 조선 관청의 중심, 궁궐과 관내각사, 2부 육조거리의 중앙 관청, 3부 그 밖의 여러 중앙 관청들, 4부 지방 관청과 지방관으로 구성됐다.

정무를 관장한 일급 재상의 최고 관청 의정부, 출세의 요직인 왕의 공식 비서실 승정원, 인사권을 쥐어 ‘하늘이 내린 관직’(天官)이라 불린 이조, 국가의 학문을 책임진 홍문관, 궁궐의 여성 공무원 전담 관청 내명부까지, 조선 왕조의 골격을 행정부터 입법·사법까지 명쾌하게 정리하여 조선의 권력 지도를 한 권으로 완결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을 두고 펼쳐진 조선 문부 엘리트의 열망이 책 안에 담겨 있다.

〈김영사·1만3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엘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엘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